

# 백영훈 “가치를 입는 거죠”... ‘음악을 입다’ 발간

“제가 왜 음악을 소유하는 것에 무게를 두느냐, 고민해본 결과 뮤지션의 아웃풋까지 아끼기 때문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에서 나아가 태도와 가치까지 내재화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음원도 듣지만 CD도 사고 LP도 사고 자서전까지 사는 거 아닐까요?”

줄줄 줄 흐르는 시내처럼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흘러 듣는 시대, 백영훈(50) 오라클코리아 상무가 ‘뮤직 티셔츠’를 입고 소유하는 이유다. 뮤지션의 음악뿐만 아니라 정신과 태도까지 소유하겠다는 다분한 선언.

백 상무가 최근 펴낸 저서 ‘음악을 입다?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을 애정하는 새로운 방법’ (브릭스 퍼넬)은 ‘티셔츠의 음악학’이라고 부를 만하다.

뮤직 티셔츠 300여벌을 모은 ‘음악 애호가’인 백 상무가 옷장뿐 아니라 추억까지 열어젖힌 ‘음악 창고’다.

뮤직 티셔츠는 뮤지션의 얼굴, 로고, 앨범 커버, 공연 기념 이미지 등 음악과 관련한 것이 프린트된 모든 티셔츠를 가리킨다.

최근 삼성동에서 만난 백 상무는 “저의 티셔츠에 대한 지론은 사람을 나타내는 미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개성, 취미, 취향의 기승전결”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건물복을 지나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라디오헤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적힌 티셔츠였는데, 서로가 말은 안 했지만 티셔츠만 보고도 동질감을 느끼고 즐거운 자극을 받았죠. 티셔츠만으로 관계에 화학 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직접 다녀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기념 티셔츠를 입고 나온 백 상무가 젊은 기운을 풍기며 17년 전의 얼굴로 해맑게 말했다.

백 상무가 기억하는 첫 번째 뮤직 티셔츠

## 스트리밍 시대에 음악 애정하는 새로운 방법... ‘티셔츠 음악학’

### 각종 티셔츠 디자인 담은 책 ‘빈티지 티셔츠’...집필 영감 받아

초는 ‘1995년 10월 5일, 서울, 코리아’가 박힌, 팻 메스니 그룹(PMG)이 앨범 ‘워 라이브 히어’ 발매를 기념해 내한한 공연 버전이다. 당시 대히트 앨범이었던 백 상무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공연이 너무 황홀해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3인원을 주고 산 워 라이브 히어 티셔츠를 해질 정도로 입고 다닌 탓에 그 옷은 몇 년 만에 잠옷이 됐다.

그렇게 십년의 세월을 백 상무와 함께 티셔츠가 버터내는 동안 메스니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했다.

자연스레 백 상무는 그의 앨범 재킷이나 연주 모습이 그려진 옷을 여러 벌 사들였다. 메스니를 입는 것이 메스니를 듣는 것과 동격이 됐다. 백 상무는 “그가 그렇듯 나 역시 계속해서 무언가를 모색하며 그가 진행하는 현재의 음악을 늘 새롭게 듣는다”고 책에 썼다.

언젠가 책을 한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백 상무가 ‘음악을 입다’를 집필하는데 큰 영감을 준 건,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열람한 ‘빈티지 티셔츠’ 관련 책이었다.

텍스트는 거의 없고 각종 티셔츠의 디자인을 담은 책이었다.

이후 백 상무가 집에서 티셔츠를 정리해 봤더니 티셔츠의 90% 이상이 음악 관련된 것들이었다. 8박스에 가득 담겨졌다. 뮤지션·앨범 관련 내용과 함께 티셔츠를 살 때의 추억, 각종 에피소드를 매개로 독자와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때 특정 분야에 열광하는 이들을 ‘덕후’라는 이름으로 희화화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 지식과 열정이 문화를 진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이 증명된 뒤 ‘마니아’라고 칭하며 대접을 해주는 것이 현재 사회 분위기다. 백 상무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인생의 여분의 시간’을 음악을 듣고 콘서트를 가는 것으로 채웠다.

사실 백 상무는 어릴 때 라디오 PD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Billie Jean)’을 듣고 음악이라는 신세계에 빠진 그는 펫 숍 보이즈, 제프 벡, 메탈리카, U2, 라디오헤드, 올라랭고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각종 음악을 섭렵했다.

2000년대 들어 언니네이발관, 나윤선 같은 국내 뮤지션들에게 빠져 들었다.

언니네이발관과 나윤선은 관련 티셔츠가 없어 아쉽게도 이번 책의 명단에서 빠진 뮤지션들이다.

백 상무에게 소유한 티셔츠 중 가장 아끼는 세 벌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첫 해의 원정 공연 관람이었던 2003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기념 티셔츠, 라디오헤드가 첫 내한공연했던 2012년 지산 록 페스티벌 티셔츠, 데이비드 보위 블랙 스타-폴 스피스 에디션’을 꼽았다.

백 상무의 음악적 취향은 유연하다. 아이돌 그룹도 포함된다. ‘샤이니’를 가장 좋아하는데 ‘누난 너무 예뻐’ ‘뷰’를 명곡으로 꼽는다.

트와이스, 블랙핑크도 좋아하는 그룹이다.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으로, 젊은 기운을 품고 사는 백 상무의 모습에서 끈대의 흔적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스스로 끈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회사 직원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만큼 고루한 생각과 미학을 강조하거나, 제 취미를 정답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코드가 통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하죠.”

백 상무는 업도 아닌 음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그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한참을 뜯었다. 그러면서 역시

음악 마니아인 영국 작가 닉 혼비가 자신에게 노래는 ‘수수께끼 같다’고 말한 내용을 떠올렸다. 본인에게 음악은 수수께끼 같고, 금방 풀리면 시시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다.

“음악은 제가 하고 싶지만 못한 표현을 대신 해주는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일깨워주는 지는 몰라서 계속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의 수수께끼가 되는 거죠. 낯선, 자신의 연애와 처지 등이 결부돼 더 새롭거나 각별하게 다가오고, 그것이 음악의 매력입니다.”

## 일찍 여윈 부모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살림남’ 노지훈

###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 고백

가수 노지훈이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살림남2)에서는 노지훈이 누나들, 가족어른들과 함께 지내는 조부모의 제사 모습이 전파를 탔다.

노지훈은 자신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홀로 제사 준비를 해야 할 아내 이은혜를 위해 제사 음식을 주문했다.

또 이은혜와 각별한 사이인 큰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내의 부담감을 덜어줬다.

노지훈의 배려로 여유가 생긴 이은혜는 큰누나와 함께 어른들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다.

노지훈은 제사 음식을 보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과거를 회상했고, 학업을 포기한 채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축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준 누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후 노지훈은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고, 저녁이 돼야야 작은 누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제사상을 차리는 사이 어른들이 도착했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이어졌다.

어른들은 장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대신해 제사를 준비한 노지훈·이은혜 부



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노지훈의 작은 아버지는 그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아쉬워 했고, 이에 노지훈은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욱 난다며 최근 홀로 남골당을 다녀온 사

실을 밝혔다.

이내 노지훈은 옛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고, 곁에 있던 큰누나 역시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뉴스스

## “생명엔 지장 없어” AOA 출신 권민아 ‘자해’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행복한 데 갈래, 여기 너무 괴롭다”라는 글과 함께 신체 일부를 자해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AOA 동료였던 지민, 설현 그리고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이름을 거명했다.

그는 “11년간 세월을 내가 어떤 취급 받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방관자라고 했다고 뭐라했던 사람들 똑똑히 알아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극단적 선택을 걱정했다.

권민아 소속사인 우리액터스 관계자가 해당 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속사는 여러 매체에 “권민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글과 사진은 삭제됐다.

앞서 작년 AOA를 탈퇴한 권민아는 팀 활동 당시 리더인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지민은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권민아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에 설현 등 일부 멤버와 한 대표를 ‘방관자’라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렸다고 밝혔다.

## 타이베이영화제 6관왕 ‘반교: 디텐션’

### 13일 개봉...게임원작 호러영화

게임을 원작으로 한 대만 호러 영화 ‘반교: 디텐션’이 오는 13일 개봉한다.

영화 ‘반교: 디텐션’은 어두운 밤, 텅 빈 학교에 남겨진 ‘팡’과 ‘웨이’가 학교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동명의 인기 호러 게임을 원작으로 한다.

대만 감독 존 쉬가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왕정, 증경화, 부방백 등이 출연했다.

이 작품은 대만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으며, 제56회 대만 금마장시상식에서 신인감독상, 각색상, 미술상, 시각효과상, 주제가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제22회 타이베이영화제에서는 대상, 최우수 영화상, 여우주연상, 시각효과상, 미술상, 음향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 블랙핑크 ‘HYLT’ 뮤비, 43일만에 4억뷰

### 역대 K팝 최단

그룹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 HYL T)’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4억뷰 돌파 K팝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다.

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선공개 타이틀곡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후 10시52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4억회를 넘었다.

지난 6월26일 오후 6시 유튜브에 공개된 43일만으로, 역대 K팝 뮤직비디오 최단 시간 내 4억뷰 도달이다. 종전 4억뷰 최단 기록은 역시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가 기록한 63일이었다. 블랙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로 이를 20일 앞당겼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는 약 32시간 만에 1억뷰, 7일만에 2억뷰, 21일 만에 3억뷰를 달성하며 K팝 유튜브 뮤직비디오 최단 신기록을 세웠다.

이 곡의 안무 영상도 2억뷰를 눈앞에 두고 있어 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12억뷰를 돌파한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포함 총 20편의 역대급 영상을 보유한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최근 연일 약 10만명씩 증가하는 무서운 기세를 보였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발표 이후 약 610만명이 증가, 현재 4350만명 이상으로 K팝 아티스트 단일 채널 최대 규모다.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케이티 페리, 리아나 등 이름만 들어도 생경한 팝스타들보다 많은 숫자다. 세계 여성 아티스트 1위다.

남녀 아티스트 전체를 놓고 봐도 블랙핑크는 저스틴 비버, DJ 마시멜로, 에드 시런, 에미넬과 함께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 4위와 불과 30만명 차이로, 곧 한 계단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YG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아티스트의 인기와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잣대 중 하나다. 특히 유튜브가 글로벌 음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끈 주역임을 떠올리면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고 전했다.